

太陽少陽人과 太陰少陰人の 睡眠, 大便, 小便에 관한 임상적 고찰

김정주 · 이영섭*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Abstract

A Clinical Study of Sleeping, Stool, Urine According to Taeyangsoyangin(Yangin) and Taeumsoeumin(Eumin)

Kim Jung-Ju, Lee Yung-Seop*, Park Seong-Sik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 Department of Statistics, Dongguk University

- Objectives** :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ordinary symptoms based on Sasang constitution. But there are not quite satisfactory between the types of Sasang constitution. So This study is for learning the characteristics of ordinary symptoms depending on Taeyangin ·Soyangin(the rest Yangin) and Taeumin Soeumin(the rest Eumin) of the Sasang constitution.
- Methods** : We classified them into the each typ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by the well-trained SCM specialist, and assessed their ordinary features by the questionnair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ordinary features to the diagnosis of SCM.
- Results** : There are a result of the binary logistic analysis on the observed questionnaire.
 - Regarding sleeping, Yangin do not dream much as Eumin do when they sleep. The time they are sleeping is not longer, and they usually do not sleep well.
 - Regarding stools, Yangin go to stool more than Eumin do. The constipation does not occur when they are not in a good condition, and they do not feel uncomfortable when they do not go to stool for a day. The length of time taken for emptying the bowels is much longer, and the hardness of their stools is much more, but the hardness does not mean that they have the constipation.
 - Regarding urine, Yangin have much more foam than Eumin.
- Conclusions** : We found that Yangin and Eumin have characteristics of ordinary symptoms, but partly there are not in accordance with ones what Lee Je-ma said in his book. So in future we hope clinical studies are required steadily.

Key Words : Sleeping, Stool, Urine, Yangin, Eumin, SCM(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 緒 論

四象醫學은 100년의 역사를 두고 많은 학문적 연

• 접수일 2005년 10월 25일; 승인일 2005년 12월 5일
• 교신저자 : 박성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031-710-3723 FAX : 031-710-3780
E-mail : nlnoarae@hanmail.net

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도 四象人の 辨證指
標가 되는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才幹, 恒心, 完
實無病, 特異病證¹과 素證 등은 四象人 진단을 위
해서 끊임없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四象人の
素證은 병증 발현에 차이를 유발하여 體質證과 體
質病證의 출발점이 되고² 四象人の 生理, 病理 및
病證藥理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하 『草本卷』)』 「病變」

Table 1. 성별 연령별 분포

	≤ 19세	20-39세	40-59세	≥ 60세	total
남	59(4.8%)	240(19.5%)	179(14.6%)	51(4.1%)	529(43.0%)
여	52(4.2%)	325(26.4%)	261(21.2%)	62(5.0%)	700(57.0%)
total	111(9.0%)	565(46.0%)	440(35.8%)	113(9.2%)	1229(100.0%)

a) % of total

第五統에서는 太陽人,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 각 체질에 따른 체형, 피부상태, 얼굴색, 수면 양태, 땀, 대변, 소변, 심리상태 및 질병을 앓고 있을 때의 제반 증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³.

이러한 四象人別 素證의 특징을 바탕으로 체질별 素證에 대한 연구^{1,4,5}와 대변⁶, 땀⁷, 수면^{8,9,10}, 소화¹¹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草本卷』에는 太陽人,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 각 체질별 특징을 구분하여 설명할 뿐 아니라 “太陽少陽 寢眠呼吸緩端寬臥靜重則 吉, 太陰少陰 寢眠呼吸洪壯轉輾有力則 吉”, “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 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³” 등과 같이 太陽少陽人(이하 陽人), 太陰少陰人(이하 陰人)의 두 가지 체질을 묶어서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素證에 관한 임상적 연구들은 사상인 개별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지 문헌적으로 陽人과 陰人의 素證 특징을 비교하여 기술된 사실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武遺稿』 등의 東武 저술에 근거하여 陽人과 陰人의 素證 특징을 비교하여 기술된 항목을 중심으로 睡眠, 大便, 小便 상태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陽人과 陰人의 素證에 대하여 문헌적으로만 제시된 내용을 이론적 고찰에서 벗어나 실제 임상적으로 연구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2002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초진으로

내원하여 사상체질의학 전문의에게 체질진단을 받고 사상체질처방의 약물이나 침구치료를 받은 외래환자 1,2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7세부터 88세까지이고 평균연령은 38.6세이며, 성별은 남자 529명(43.0%), 여자 700명(57.0%)이었다(Table 1).

2. 방법

1) 자료 조사 방법

사상체질의학 전문의에게 체질진단을 받고, 사상체질처방의 약물이나 침구치료를 받고 특별한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은 환자 1,229명의 대상자들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다.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睡眠, 大便, 小便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체질의 진단은 사상체질의학 전문의가 환자의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및 病證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초진시 의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2) 자료처리 및 통계

설문지 응답 자료를 통해 陽人과 陰人別 문항의 응답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자료를 입력할 때 설문지의 응답은 “전혀 아니다”는 1, “아니다”는 2, “보통”은 3, “그렇다”는 4, “매우 그렇다”는 5로 코드화하여 입력하였고, 太陽人, 少陽人을 陽人으로, 太陰人, 少陰人을 陰人으로 하여 입력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택할 때 변수 선택의 조건을 좀더 완화하여 p 값을 0.1이하로 하여 가능한 많은 변수가 선택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8.0을 이용하였다.

Table 2. 陽人 陰人別 성별 분포

		남		여		합 계	
陽人	太陽人	11	^{a)} 272(^{b)} 22.1%)	太陽人	3	107(8.7%)	379(30.8%)
	少陽人	261		少陽人	104		
陰人	太陰人	207	257(20.9%)	太陰人	154	593(48.3%)	850(69.2%)
	少陰人	50		少陰人	439		
합계		529(43.3%)		700(57.0%)		1229(100.0%)	

a) N b)% within total

III. 研究結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陽人 陰人別 성별 분포

陽人이 379명, 陰人이 850명이었고, 陽人 陰人에 따른 성별 분포는 Table 2와 같다.

2) 陽人 陰人別 BMI 지수

陽人과 陰人別 BMI 지수는 陽人 22.72 (S.D:2.52) 이고, 陰人 2.93 (S.D:3.48) 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설문지 문항의 陽人 陰人別 응답분포의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모든 문항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체질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을 선택하여 그들의 중요성이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이 때 STB 값을 통해 영향력이 큰 문항을 알 수 있는데 STB 값이 양이면 해당 문항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STB 값이 음이면 해당 문항에서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로 응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STB의 절대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크다.

1) 수면 문항 분석

Table 4은 10개의 수면 문항에 대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수면 문항 중 陽人과 陰人을 결정하는데 가장

Table 3. 陽人 陰人別 BMI 지수

	양인 (N=379)	음인 (N=850)	전체 (N=1,229)
BMI 지수	22.72±2.52*	22.93±3.48	22.86±3.21

* Mean ±S.D, P>0.05(P=0.3)

Table 4. 수면 문항 분석 결과

(p<0.1)

		陽人 對 陰人
		STB
문항 6	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	-0.1597
문항 10	평소 수면시간은?	-0.0767
문항 1	잘 자는 편이다.	-0.0668

영향력이 큰 문항은 문항6(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으로 문항6(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陰人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문항은 문항10(평소 수면시간은), 문항1(잘 자는 편이다.)의 순으로 문항10(평소 수면시간은), 문항1(잘 자는 편이다)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陰人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항10(평소 수면시간은)의 보기는 “①5시간 이하 ②5~6시간 ③6~7시간 ④7~8시간 ⑤8시간 이상”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많이 자는 편으로 볼 수 있다.

3) 대변 문항 분석

Table 5은 10개의 大便 문항에 대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大便 문항 중 陽人과 陰人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문항은 문항9(대변의 빈도는?)로 문항9(대변의 빈도는?)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陰人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문항은 문항8(몸 상태가 나쁠 때 변비가 생긴다.)로 문항8(몸 상태가 나쁠 때 변비가 생긴다.)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陰人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陽人과 陰人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큰 문항은 문항6(대변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하다.), 문항2(대변

Table 5. 대변 문항 분석 결과 (p<0.1)

	陽人 對 陰人
	STB
문항 9 대변의 빈도는?	-0.1496
문항 8 몸 상태가 나쁠 때 변비가 생긴다.	-0.1290
문항 6 대변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하다.	-0.1172
문항 2 대변을 보는 시간이 길다.	0.1090
문항 4 대변이 굳은 편이다.	0.1077
문항 1 변비가 있는 편이다.	-0.1001
문항 10 대변의 색깔은?	-0.0763

을 보는 시간이 길다.), 문항4(대변이 굳은 편이다.), 문항1(변비가 있는 편이다.), 문항10(대변의 색깔은?)의 순으로 문항6(대변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하다.)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陰人일 가능성이 크고, 문항2(대변을 보는 시간이 길다.), 문항4(대변이 굳은 편이다.)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陽人일 가능성이 크며, 문항1(변비가 있는 편이다.), 문항10(대변의 색깔은?)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陰人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항9(대변의 빈도는?)의 보기는 “①1일 3회 이상 ②1일 1~2회 ③1일 1회 ④1~2일 1회 ⑤3일이상 1회”로 높은 점수일수록 대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문항10(대변의 색깔은?)의 보기는 “①황색 ②갈색 ③ 검은색 ④ 푸른색 ⑤회색”으로 자료의 속성이 연속적이지 않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항이다.

4) 소변 문항 분석

Table 6은 10개의 小便 문항에 대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小便 문항 중 陽人과 陰人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문항은 문항5(소변에 거품이 많다)로 문항5(소변에 거품이 많다)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陽人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문항은 문항10(소변 색깔은?)으로 문항10(소변 색깔은?)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陰人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10(소변 색깔은?)의 보기는 “①맑

Table 6. 小便 문항 분석 결과 (p<0.1)

	陽人 對 陰人
	STB
문항 5 소변에 거품이 많다.	0.1562
문항 10 소변 색깔은?	-0.0805

은 색 ②질은 노란색 ③희뿌연 색 ④붉은 색 ⑤콜라 색”으로 자료의 속성이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항이다.

IV. 考 察

四象人은 체질마다 體形, 生理, 病理가 다르게 이루어져 있는데 東武 李濟馬는 이를 “太陽之形證…少陽之形證 1)”이나, “少陰人 病證藥理…少陽人 病證藥理…太陰人 病證藥理 2)”라고 표현하여 사람마다 가지는 특징이 다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질의 특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陽人과 陰人을 묶어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를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體形으로 陽人과 陰人을 비교하면 陽人은 陰人에 비해 上體가 발달하고 下體는 弱하고, 陰人은 그 반대이며, 陽人은 마른 것이 좋고, 陰人은 다소 살찐 것이 좋다. 이것은 太陽人은 哀性遠散而怒情促急하고, 少陽人은 怒性宏抱而哀情促急하며, 太陰人은 喜性廣張而樂情促急하고, 少陰人은 樂性深確而喜情促急한 四象人의 性情과 연관성이 있다. 哀怒之氣는 上升하고 喜樂之氣는 下降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上升之氣가 過多하면 下焦가 傷하게 되

1) 李濟馬原著. 朴性植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집문당. 2003.(이하 『草本卷』) 「病變」第五統 p246 “太陽之人 形證 平居鼻涕絶少而大便罕泄 少陽之人 形證 運氣頭頂必強 鼻梁必滿”
 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서울. 여강출판사. 2002.(이하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p66-67 “自神農黃帝以後 秦漢以前 病證藥理 張仲景傳之 魏晉以後 隋唐以前 病證藥理 朱肱之 宋元以後 明以前 病證藥理 李梴 龔言 許浚傳之”, “少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庶幾乎昭詳發明而 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少陽人 病證藥理 張仲景 半乎昭詳發明而 宋元明諸醫 庶幾乎昭詳發明 太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略得影子而 宋元明諸醫 太半乎昭詳發明 太陽人 病證藥理 朱震亨 略得影子而 本草 略有藥理”

Table 7. 陽人 陰人 의 특징

	陽 人	陰 人
體 形	太陽少陽人臂強而股弱(普濟演說 ⁶⁾)	太陰少陰人股強而臂弱也(普濟演說)
	太陽少陽人宜瘦而不宜肥(普濟演說)	太陰少陰人宜肥而不宜瘦也(普濟演說)
	太陽少陽人 瘦吉 而肥凶也(東武遺稿 ⁷⁾)	太陰少陰人 肥吉 而瘦凶也(東武遺稿 ⁸⁾)
睡 眠	右耳目, 太少陰人之耳目, 不如太少陽人之耳目, 耳目視聽之力不及也. 太少陽人之下焦不足, 卽地不滿東南, 而然則左手足不如右手足(東武遺稿 ⁹⁾)	右手足, 太少陽人之手足, 不如太少陰人之手足, 手足行去之力不及. 蓋太少陰人之上焦不足, 卽天不足西北, 而然則右耳目不如左耳目(東武遺稿 ¹⁰⁾)
	太陽少陽 寢眠呼吸緩端寬臥靜重則 吉(草本卷)	太陰少陰 寢眠呼吸洪壯轉輾有力則 吉(草本卷)
大 小 便	太陽少陽 眠時 呼吸沈潛 轉輾不頻 則吉也 眠時呼吸雄大 轉輾煩促 則凶也(東武遺稿 ¹¹⁾)	太陰少陰 眠時 呼吸雄大 能轉輾而確壯則吉也 眠時呼吸微細 不能轉輾而沈潛 則凶也(東武遺稿 ¹²⁾)
	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草本卷)	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草本卷)
嘔吐吐食, 下利後重	太陽少陽之病 唯嘔吐食者 其病進也 而少陽人尤甚也 下利後重者 其病退也 而太陽人尤速也(草本卷)	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 而少陰人尤甚也 嘔吐吐食者 其病退也 而太陰人尤速也(草本卷)

어 陽人은 上體가 발달하고 下體는 弱하게 되고, 喜樂之氣가 過多하면 上焦가 傷³⁾하게 되어 陰人은 下體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太陽人和 少陽人은 哀怒之氣가 過多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고, 太陰人和 少陰人은 喜樂之氣가 過多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陽人和 陰人の BMI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陽人은 다른 것이 좋고, 陰人은 다소 살찐 것이 좋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 『草本卷』에서 “太陽人少陰人 膚肉清瘦則無病 濁肥則有病 太陰人少陽人 膚肉濁肥則無病 清瘦則有病”이라 한 부분⁴⁾과 『東武遺稿』 다른 부분에서 “太陰少陽人 肥吉而瘦凶 太陽少陰人 瘦吉而肥凶⁵⁾”이라고 표현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수면에서 陽人은 잘 때 조용하게 자는 것이 좋고, 陰人은 잘 때 호흡이 크면서 몸부림치듯이 몸을 뒤척이는 것이 좋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陽人은 원래 호흡이 거칠고 잠자리도 고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야간에 호흡이 완만하고 조용하게 자는 것이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陽人이 陰기운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므로 그 상태가 잠잘 때 고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陰人은 원래 호흡이 완만하고 잠자리도 고요할 것 같지만, 오히려 야간에 호흡이 요란해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는 것이 건강하다는 표현으로 이것은 陰人이 陽기운을 충분히

3) 『東醫壽世保元』「四端論」p36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4) 『草本卷』「病變」第五統 p231
 5)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 학사. 1999. p221
 6) 金達來譯篇. 『東醫壽世保元普編』 서울. 대성의학사. 2002.
 제1장이 普濟演說이다 普濟演說은 원저자를 확인하지 못한 필사본으로 사상의학의 임상적용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작성연대는 庚子閏秋序라는 서문을 통해 1900년 음력8월로 추정되니 동무선생이 운명(1900년 9월) 할 무렵이며 아직 『東醫壽世保元』 庚子本(印本)이 나오기 전이다. 卷末에 ‘東醫壽世保元補編’이라는 부제가 있어 『東醫壽世保元』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普濟演說』, 『人生日用說』에서 수세보원의 골간을 정리해 놓았으며

『四象流行圖』, 『天地運氣』, 『臟腑總圖』에서는 『東醫寶鑑』의 運氣와 臟腑論을 대입하고 있고, 『王叔和의 病生死候歌』, 『四象六經歌』에서는 脈論과 傷寒六經證의 결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大人門, 眼門, 耳門, 大小便門, 癰疽門, 婦人門, 小兒門으로 대별되는 경험방을 서술하였는데 곳곳에서 <少陽人尤好>와 같이 임상 치료효과를 덧붙인 곳도 있어 상당부분 체질에 따른 효능의 편차를 관찰해 왔던 임상경험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사상의학계의 상세한 대조와 연구가 필요한 중요자료이다.
 7)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 학사. 1999. p167
 8)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 학사. 1999. p167
 9) 李濟馬 지음.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서울. 청계. 1999. p341, 344
 10) 李濟馬 지음.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서울. 청계. 1999. p341, 344
 11)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 학사. 1999. p167
 12)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 학사. 1999. p167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상태가 잠잘 때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³⁾.

문항 7(코를 고는 편이다.)과 문항 8(몸부림을 치는 편이다.)은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문항이나 문항 7(코를 고는 편이다.)과 문항 8(몸부림을 치는 편이다.)에서 陰人과 陽人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문항 분석 결과 陰人일수록 잠을 잘 때 꿈이 많고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陰人이 陽人에 비해 陰的인 측면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수면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면의 단계 중 NREM수면이 차지하는 부분은 감소하고 REM수면이 증가되는데 REM수면 80%에서 꿈을 꾸다¹²⁾는 것을 참고로 할 때 이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大小便에서 陽人은 大小便이 滑利하면 좋고, 陰人은 大小便이 滑利하면 좋지 않다고 하였는데 大便은 水穀의 出納과정에서 放出이 잘 되는 것이고, 小便은 氣液代謝에서 肝局의 吸聚之氣가 잘 유지되고 있는 표현이므로 이들은 모두 上升하는 기운보다 下降하는 기운이 盛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上升之氣가 강한 陽人에서 下降하는 기운이 많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는 것이다. 또 陽人은 下利後重하면 병이 물러가고 陰人은 下利後重하면 병이 진행된다고 하여 陽人과 陰人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이는 陰人은 下降하는 기운이 강한테 下利後重이 있으면 기운이 더욱 하강하기 때문¹³⁾이다.

이는 병증으로 나타나는 부분과도 일치한다. 太陽人과 少陽人에서 오직 구역질하고 음식을 토하면 그 병이 진행되는데 少陽人이 더 심하게 악화되고, 설사하면서 뒤가 묵직하면 병이 좋아지는데, 太陽人이 少陽人보다 더 빨리 좋아진다. 太陰人과 少陰人의 병에서 설사하면서 뒤가 묵직하면 그 병이 악화되는데, 少陰人이 더 심하게 악화되고, 구역질하고 음식물을 토하면 그 병이 좋아지는데, 太陰人이 少陰人보다 더 빨리 좋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陽人은 上升하는 기운이 강하므로 구역질하거

나 토하게 되면 기운이 더욱 위로 치우쳐 오르기 때문에 병이 더 진행한다고 표현하였고, 陰人은 下降하는 기운이 강한테 설사하면 기운이 더욱 下降되므로 병이 악화된다³⁾고 한 것이다.

大便 문항 분석 결과 陰人과 陽人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문항은 문항9(대변의 빈도는?)로 陰人일수록 大便의 빈도가 적다고 하였는데 이는 陰人은 大小便이 滑利하면 좋지 않다고 한 조문과 어느정도 일치하지만 문항8(몸 상태가 나쁘면 변비가 생긴다)에서도 陰人이 높은 응답을 보여 위의 조문과는 차이가 있다. 즉 몸 상태가 나쁠수록 大便이 滑利해야 위의 조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陰人이 陽人에 비해 대변 습관에 있어 변화가 많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6(대변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하다)에서는 少陽人이 大便을 하루가 지나도록 보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陽人에서 높은 응답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陰人에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2(대변을 보는 시간이 길다)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陽人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최 등⁶⁾의 연구와 같이 少陰人이 太陰人과 少陽人에 비해서 大便 보는 시간이 짧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다는 것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나 陽人이 大便을 시원하게 보는 것이 좋다는 문헌의 내용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소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草本卷』에 太陽人과 少陽人은 大小便이 滑利하면 좋고, 太陰人과 少陰人은 大小便이 滑利하면 좋지 않다¹⁴⁾고 하여 陽人과 陰人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항2(소변양이 많다.), 문항3(소변볼 때 시원한 편이다)의 문항에서는 陽人과 陰人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고, 다만 문항5(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항목에서 陽人이 陰人에 비해 높은 응답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항은 문헌에 없는 부분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太陽人은 小便이 短澁하면 병이고 두 시간 동안

13) 『草本卷』「病變」第五統 p237-238

14) 『草本卷』「病變」第五統 p233

여러 번 보는 것은 나쁜 증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¹⁵⁾ 이것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陽人 小便은 첫째는 양이 많아야 하고 둘째는 자주 봐야 한다¹⁶⁾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草本卷』에서 太陽人이 병이 있을 때 小便이 赤黃하면 그 병이 물러간다¹⁷⁾고 하여 赤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太陽人의 完實無病의 조건이 小便旺多인 것을 본다면 小便이 많고 자주 보는데 小便의 색이 赤黃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문헌상으로 나타난 陽人과 陰人의 素證 특징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문헌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수면 문항에서 陰人인 경우 야간 호흡이 요란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건강하다고 하였는데 몸부림을 치는 편이다라는 문항과 코를 고는 편이다라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대소변 문항에서 陽人은 大小便이 滑利하면 좋고 陰人은 大小便이 滑利하면 좋지 않다고 하였는데 대변문항에서 陰人이 대변 빈도가 적다고 한 부분은 일치하였으나 몸이 나쁠 때 변비가 생긴다고 응답한 부분은 문헌과 차이가 있었으며 소변 문항에서는 소변량이 많다는 문항과 소변볼 때 시원한 편이다라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임상적 연구가 문헌상 내용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 병원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지의 내용이 문헌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다양한 통계적 방법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陽人과 陰人의 특징 이외 太陽人과 太陰人은 氣液代謝에서 呼散과 吸聚의 생리를 가지고, 少陽人과 少陰人은 水穀代謝에서 放出과 納積의 생리를 가지므로 생리적으로 呼散과 放出이 많은 太陽人과 少陰人, 생리적으로 吸聚와 納積이 많은 太陰人과 少陽人의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V. 結 論

陽人과 陰人의 素證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내원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임상적으로 체질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 1,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응답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睡眠에서는 陽人이 陰人에 비해 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 아니고, 평소 수면시간이 짧으며, 잘 자는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大便에서는 陽人이 陰人에 비해 대변을 더 자주 보는 편이고, 몸 상태가 나쁠 때 변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대변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해 하지 않고, 대변을 보는 시간은 길며, 대변이 굳은 편이고, 변비가 있는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小便에서는 陽人이 陰人에 비해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I. 參 考 文 獻

1. 최재영 太少陰陽人의 素證에 關한 臨床的 研究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關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26
3. 李濟馬原著. 朴性植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집문당, 서울, 2003.
4. 김선민, 송일병.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武遺稿』에서의 소증에 關한 高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67-77.
5. 함통일, 황민우, 이태규, 김상복,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중풍입원환자의 체질별 素證과 중풍 발생 후 病證에 關한 임상적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3):34-45.
6. 최재영,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15) 『草本卷』 「病變」 第五統 p239 “太陽人 小便澁短者病也 二時間屢次則 非惡症也”

16)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內觸小腸病論」 p260 “小便一則宜多也 二則宜數也”

17) 『草本卷』 「病變」 第五統 p237 “太陽人病 小便赤黃則其病退也”

-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 14(2):58-68.
7. 최재영, 이영섭,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땀(汗)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대한한의학회지. 2002;23(4):186-195.
 8. Jae-Young Choi, Jeong-Rak Choi, Uong-Seop Lee, Seong-Sik Park. A Study on the Clinical Features of Ordinary sleeping Patterns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 Using the Logisitic Regrission. Kor J. of Oriental Medicine. 2004;25(4):171-179.
 9. 최정락,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수면의 특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 204-215.
 10. 최정락, 최재영, 이영섭, 박성식. 태음인 수면의 임상적 특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3):18-24.
 11. 백태호, 최정락, 박성식. 消化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112-119.
 12. 金成浩, 李相龍. 꿈의 인식과 병증에 대한 동서 의학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995;3(2):271-286.
 1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서울, 2002.
 14. 李濟馬著. 량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혜동의학사, 서울, 1999.
 15. 李濟馬 지음.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청계, 서울, 1999.
 16. 金達來譯篇. 東醫壽世保元普編. 대성의학사, 서울, 2002.

K C I

부록 1. 설문지

- 수 변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잘 자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잠을 들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낮잠을 잘 자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잠을 자고 나서도 몸이 무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잠을 자는 중 자주 깬다	①	②	③	④	⑤
6. 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코를 고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몸부림을 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다	①	②	③	④	⑤
10. 평소 수면시간은?	①5시간 이하 ②5~6시간 ③6~7시간 ④7~8시간 ⑤8시간 이상				

- 대 변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변비가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대변을 보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3. 대변을 보면 시원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대변이 굳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대변이 묽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대변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몸 상태가 나쁠 때 설사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8. 몸 상태가 나쁠 때 변비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9. 대변의 빈도는?	①1일 3회이상 ②1일 1~2회 ③1일 1회 ④1~2일 1회 ⑤3일이상 1회				
10. 대변의 색깔은	① 황색 ② 갈색 ③ 검은색 ④ 푸른색 ⑤ 회색				

- 소 변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소변 양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소변 볼 때 시원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소변을 야간에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소변에 거품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소변을 지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몸 상태가 나쁠 때 소변양이 줄어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몸 상태가 나쁠 때 소변색이 짙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소변의 빈도는?	① 1일 2회 이하 ② 1일 3~4회 ③ 1일 5~6회 ④ 1일 7~8회 ⑤ 1일 9회 이상				
10. 소변 색깔은	① 맑은색 ② 짙은 노란색 ③ 희뿌연 색 ④ 붉은색 ⑤ 몰라 색				